

청년층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에프앤비브릿지협동조합 최낙원

왜 사회적경제에는 청년층이 많지 않을까? 사회적경제 자체에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년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과 지향하는 가치점은 다양하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도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다양한 동기 중 청년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시선으로 의견을 내보려 한다.

충남의 청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에서야 청년 실업 문제해결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과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은 현재 충남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사회적경제 지원제도다.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라는 목적을 지닌 두 제도는 인건비 지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는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틀과 단순한 일 일자리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 새로운 사회실험을 이윤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자질과 아이디어를 인정함으로써 사업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의 새로운 경제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년의 창의, 혁신성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및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적경제에서 지향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개인화된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고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정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이 될 것이다. 나아가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다수의 청년 세대들에게 사회적경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만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